

대화에서 자료의 믿음성을 안받침하는 논법들

리용석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말이 사실에도 맞고 리치상으로도 어긋나지 않으며 도덕관념에도 부합되는것임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머리를 쓴다.》(《김정일선집》증보판 제5권 121페이지)

대화과정에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자기의 주장을 정확히 전달하고 납득시키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진 대화자들이 명백한 사실자료와 과학적인 원리에 근거하여 자기의 주장을 론박할 여지없이 확증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논의되는 문제에 대하여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기 힘든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에조차 사람들은 자기 말이 사실에도 맞고 리치상으로도 어긋나지 않으며 도덕관념에도 부합되는것임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논법들을 리용한다.

대화에서 사람들은 각이한 자료들에 근거하여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려고 한다. 이때 리용되는 자료들이 진리여야 한다는것은 초보적인 요구이다.

그러나 대화장소에서 모든 자료의 진리성을 직접 확인하는것은 거의나 불가능하다. 이로부터 대화에서는 많은 경우 자료의 믿음성을 그 출처에 기초하여 결정한다.

자료의 믿음성을 안받침하는 논법에는 우선 정보원천의 권위를 리용하여 주장하는 논법이 있다.

이 논법은 정보원천이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있는 사람 또는 권위있는 신문이나 학술잡지라는것을 근거로 하여 어떤 주장을 정당화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일부 학생들은 학습토론과정에 《박사선생님이 하신 말씀이니 틀릴수가 없지.》라고 하거나 《SCI급국제학술잡지에 발표되었던 리론이니 옳을거야.》라는 식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논리적구성은 다음과 같다.

전제₁: 제시된 정보원천은 권위가 있다.

전제₂: 그에 의하면 현재 논의되는 주장이 진리(허위)이다.

결론: 논의되는 주장은 진리(허위)이다.

자료의 믿음성이 정보원천의 권위에 크게 의존하는것은 사실이지만 권위있는 정보원천에서 나온 자료가 필연적으로 진리인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대화과정에 상대방이 이렇게 주장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따져보아야 한다.

① 정보원천의 권위에 대한 질문: 제시된 정보원천이 권위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토론과정에 어떤 국제학술잡지에 실린 자료를 인용하였다면 그 학술잡지의 영향지수나 SCI급잡지에서 차지하는 순위가 얼마인가를 따져보아야 한다.

② 주장의 사실여부에 대한 질문: 그 정보원천에 실지로 그런 주장이 있는가?

우와 같은 례에서 저자와 제목, 인용한 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복사한 자료같은것이 있는가를 확인할수 있다.

③ 다른 권위자의 의견에 대한 질문: 그와 다르게 주장하는 다른 권위자는 없는가?

우와 같은 례에서 해당한 검색어로 인터넷자료검색을 하여 그 문제와 관련한 다른 권위자의 주장이 있는가를 확인할수 있다.

우의 세가지 문제가 원만히 해명될 때 정보원천의 권위에 기초한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할수 있다.

자료의 믿음성을 안받침하는 론법에는 또한 전문가의 의견에 기초하여 주장하는 론법이 있다.

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로부터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근거로 하여 어떤 주장에 신빙성을 부여할수 있다. 례를 들어 한 저명한 의학교수의 말을 빌어 새로 만든 약이 효능이 높다는것을 주장할수 있다.

이러한 주장의 논리적구성은 다음과 같다.

전제₁: 의견을 제시한 사람이 논의되는 분야의 전문가이다.

전제₂: 그는 논의되는 주장이 진리(허위)라고 주장한다.

결론: 논의되는 주장은 진리(허위)이다.

전문가의 주장이 비전문가의 주장보다 신빙성이 큰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절대화할수는 없다. 때문에 대화과정에 말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듣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따져보아야 한다.

① 전문가에 대한 질문: 전문가를 어느 정도 믿을수 있는가?

— 전문가의 이름, 직업, 실무능력, 권위, 상급?

— 어떤 학위나 전문가자격을 가지고있는가?

— 같은 분야에서 실력이 비슷한 전문가들이 그의 능력을 인정하는가?

— 그가 해당 분야에서 어떤 경험과 기술을 보여주었는가?

— 출판물에 발표한 출판물이나 해당 분야의 지적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은 무엇인가?

② 해당 분야에 대한 질문: 그가 논의되는 분야의 전문가인가?

의사자격을 가지고있다고 하여 누구나 모든 의학적문제에 전문가로서 증언할 자격을 가지는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는것은 의학이 전문화되어있는 오늘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다.

생활환경에서 사람들은 흔히 전문가에 대한 비판적인 질문이 없이 전문가에게 의존한다. 례를 들어 의사를 찾아간 환자는 의사가 처방하는 약을 의문없이 사용하며 차수리소에서 제동기를 교체해야 한다는 수리공의 말을 차주인들은 그대로 믿는다.

— 해당 전문가의 분야가 논의되는 지식과 관련된 분야인가 아니면 논의되는 지식과 관련된 주장을 지지하는 전문기술을 취급하는 분야인가?

— 만일 전문가가 논의되는 분야와 밀접히 련관된 어떤 분야에서 일한다면 두 분야의 련계는 어느 정도 밀접한가?

— 논의되는 문제가 결론을 내리는데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의 지식이 직접 필요되는 문제인가?

— 전문가의 분야가 기술적변화나 새 지식의 급속한 발전이 이룩되고있는 분야인가? 그렇다면 그 전문가가 이러한 최신성과들을 알고있는가?

③ 의견에 대한 질문: 전문가의 의견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 논의되는 주장과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정확히 인용하였는가? 전문가가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였다는것을 확인할수 있는가?

— 만일 전문가가 정확히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면 무엇을 주장하였으며 논의되는 주장은 어떻게 나온것인가?

— 만일 논의되는 주장이 둘이상의 전제에 기초하여 나온것이라면 이 전제들이 둘이상의 전문가들에게서 나올수도 있지 않는가? 만일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주장에서 차이가 있다는 증거가 있는가?

— 전문가가 무슨 의견을 주었는가 하는것이 명백한가? 만일 명백치 않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정당성을 론하는 사람이 전문가의 의견을 해석한 과정이 옳게 되었는가? 다르게 해석할수도 있지 않는가? 참작해야 할 중요내용을 빼놓을수도 있지 않는가?

④ 전문가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 그가 성품상 믿을만 한 사람인가?

— 전문가가 편견이 있는가?

— 전문가가 솔직한가?

— 전문가가 량심적인가?

⑤ 일치성에 대한 질문: 논의되는 주장이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과 일치되는가?

— 논의되는 주장이 해당 분야에서 공인된 견해인가?

— 그렇지 않다면 해당 전문가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 주장이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설명할수 있는가?

⑥ 근거성에 대한 질문: 그의 주장이 근거에 기초하고있는가?

— 전문가자신이 이와 같은 견해를 가지게 된 주관적인 근거는 무엇인가?

— 만일 전문가와 상관없이 제시된 물질적증거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전문가가 이것을 충분히 처리할수 있는가?

— 주어진 견해가 과학적으로 확인할수 있는것이라는것을 증명할수 있는가?

위의 6가지 문제가 원만히 해명될 때 전문가의 의견에 기초한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할수 있다.

자료의 믿음성을 안받침하는 논법에는 또한 증인의 말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논법이 있다.

이 논법은 법률적인 문제와 관련된 대화들에서 많이 리용된다.

일반적으로 증인이란 자기가 알고있는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 사실을 법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실그대로 말할 의무와 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증인의 말은 증인이 해당 사건사실에 대하여 감각, 지각, 기억한 내용을 법기관앞에서 하는 진술이다.

증인의 진술내용에는 증인이 직접 사건과 관련하여 감각, 지각, 기억한 사건사실이 포함되어있는것만큼 그것은 사건의 진상을 밝힐수 있는 중요한 증거로 된다.

증인의 말에 기초한 주장의 논리적구성은 다음과 같다.

전제₁: 증인이 논의되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있다.

전제₂: 증인은 그 사실이 진리(허위)라고 말한다.

결론: 그 사실자료는 진리(허위)이다.

그러나 증인의 말은 안정성이 없고 변화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있다.

증인의 말은 여러가지 요인으로 하여 실제한 사건사실과 맞지 않을수도 있고 의식적

인 거짓진술로 되는 경우도 있다. 증인의 말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은 증인이 감각, 지각할 당시의 주객관적조건과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 범죄자나 그의 가족, 친척, 당사자들의 복수나 위협, 매수, 수치감 등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증인진술은 상대적으로 안정하지 못하며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때문에 대화과정에 말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듣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따져보아야 한다.

① 증인의 자격에 대한 질문: 그 증인이 논의되는 사실에 대하여 정말로 알고있는가?

이것은 증인으로서의 자격과 관련된 문제이다. 사건의 전부 혹은 부분적인 사실들에 대하여 알고있고 그것을 정확히 표현할줄 아는 사람은 증인으로 될수 있으며 이것은 증인자격의 일반적인 조건으로 된다. 그러므로 그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증인으로 될수 없다.

② 체험의 정확성에 대한 질문: 그가 잘못보았다는 증거는 없는가?

증인이 어떤 사실사정에 대한 진술을 할 때까지는 감각, 지각, 기억, 재현의 심리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증인은 어떤 사건의 사실과정을 감각기관을 통하여 보고 듣거나 감득(감각, 지각)한것을 기억하고있다가 그것을 재현하여 진술하게 된다. 증인진술자체가 이러한 심리적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것만큼 매개 심리적과정과 관련하여 증인의 말은 철저히 검토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증인의 감각기관의 정상성여부와 감수성정도, 증인이 사건사정을 지각하는데 영향을 주는 주객관적요인들, 사건사실에 대한 증인의 기억, 재현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증인의 말을 검토평가하여야 한다.

③ 증인의 신뢰성에 대한 질문: 그가 솔직한 사람인가?

증인에는 목격자증인, 피해자증인, 공범자증인, 범죄자의 가족, 친척증인 등이 있다. 이러한 증인들은 사건과의 이해관계와 여러가지 주객관적요인으로 하여 알고있는 내용을 정확히 진술할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들에 충분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증인의 말을 수집된 다른 증거들과 대비검토하는 방법은 증인진술이 가짜진술인가 진짜진술인가를 가려낼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이다.

증인의 진술이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와 차이가 나면 그의 진술내용이 거짓이거나 아니면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가 정확치 못하다는것을 의미한다. 이미 수집된 증거들에는 감정의 결과, 증거물, 검증의 결과, 증거문서, 피심자의 진술 등이 속한다. 증인의 진술내용과 이미 수집된 증거자료와 대조해보면 사실과 어긋나는 모순을 포착할수 있다. 만일 증인이 의식적으로 허위진술하였다면 이미 수집된 자료와 맞지 않는 모순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④ 증언의 증명력에 대한 질문: 그의 증언이 논의되는 사실을 확증하는가?

그가 진술한 내용이 논의되는 사실과 관련이 있을수 있지만 그것을 확증하지 못하는 것으로 될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그가 《사건발생당시 김 X X의 손에 칼이 들려있는것을 보았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것이 《김 X X가 칼로 리 X X를 찔렀다.》는것을 확증해주지는 못한다.

위의 4가지 문제가 원만히 해명될 때 증인의 말에 기초한 주장의 타당성을 인정할수 있다.

자료의 믿음성을 안받침하는 논법에는 또한 보편적인 견해나 실천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논법이 있다.

보편적인 견해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논법은 주장자체의 진가에 기초하여 그것을 정당화하는것이 아니라 그것이 널리 인정되어있기때문에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논법이다. 예를 들어 《대학생들속에서 논리학은 힘든 과목으로 인정되어있다. 많은 대학생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것은 논리학이 실지로 힘든 과목이라는것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논리학이 힘든 과목인것만은 사실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보편적인 견해에 기초한 주장의 논리적구성은 다음과 같다.

전제₁: 논의되는 주장이 사람들속에서 공인된 주장이다.

전제₂: 공인되어있다는것은 해당 주장에 유리한 근거이다.

결론: 논의되는 주장이 진리일것같다.

일부 사람들은 전문가의 의견보다 대중의 의견이 더 무게가 있을수도 있다고 보지만 이 논법은 전문가의 의견을 리용하는 논법보다 일반적으로 설득력이 약하고 오류로 되는 경우가 많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일부대들과의 연합전선을 실현하기 위해 우사령과 담판하실 때 우사령은 입을 가진 사람이면 다 공산당이 나쁘다고 말하기때문에 자기도 그런줄 안다고 고집하였다.

그러므로 대화과정에 말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듣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따져보아야 한다.

① 근거성에 대한 질문: 논의되는 주장이 일반적으로 진리로 인정되고있다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인가? 여론조사결과인가 아니면 상식인가?

우의 실례에서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속에서 논리학이 힘든 과목으로 인정되고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가? 대학생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는가 아니면 상식적인것인가?

② 사실조사방법에 대한 질문: 여론조사가 통계적으로 타당한가?

만일 학생들에 대한 통계조사를 진행하였다면 어떤 학생들을 표본으로 선택하였는가? 혹시 같은 교원이 배워준 학생들만을 선택하였다면 그러한 통계결과는 귀납추리의 요구에 맞지 않는것으로서 타당한 근거로 될수 없다.

③ 모순되는 사실에 대한 질문: 논의되는 주장이 공인되어있다고 하여도 그에 대하여 의심할 근거가 없는가?

만일 대학생들의 대다수가 논리학과목을 힘들어하는것이 사실이라고 하여도 일부 학생들은 논리학과목을 매우 재미있어하고 시험에서 늘 최우등을 한다면 과목자체가 힘든 과목이라는 주장을 의심할수 있는 근거로 된다.

보편적인 실천을 근거로 하는 논법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기때문에 그렇게 하는것이 옳다고 주장하는 논법이다.

속담에 《우는 모퉁이줄만 알고 운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남들이 다 그렇게 하기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장을 비웃은 말이다. 예를 들어 일부 청년들은 류행이라고 하면서 자기 몸에 잘 어울리지도 않는 옷차림이나 머리단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주장의 논리적구성은 다음과 같다.

전제₁: 논의되는 행위가 사람들속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전제₂: 이것은 무엇이 당연한가를 보여주는 근거이다.

결론: 논의되는 행위가 옳다.

많은 사람들이 하는 실천활동이라고 하여도 그가운데는 옳은것도 있을수 있고 그른것도 있을수 있다. 그러므로 대화과정에 말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듣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따져보아야 한다.

① 사실여부에 대한 질문: 보편적인 실천이라는 증거가 얼마나 믿음직한가?

대화에서는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사실자료를 꾸며내는 경우도 간혹 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증거로 되는 사실자료의 믿음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일반화에 대한 질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한다는 결론은 지나친 일반화가 아닌가?

일부 청년들이 우리 식이 아닌 옷차림을 한다고 하여 그것을 유행이라고 하면 그것은 지나친 일반화로 된다.

자료의 믿음성을 안받침하는 논법에는 또한 개별적사람의 신뢰성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논법이 있다.

이 논법은 어떤 개별적사람의 신뢰성에 근거하여 그의 주장의 진리성을 이끌어내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대부해줄것을 요구하면서 한달내로 꼭 반환하겠다고 하였다고 하자. 이 경우 그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논의될 때 일부 사람들은 그는 좋은 사람이므로 한달내에 갚을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가 험잡군이기때문에 갚지 않을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의 논리적구성은 다음과 같다.

전제₁: 누군가 어떤 주장을 한다.

전제₂: 그는 믿을수 있는(믿을수 없는) 사람이다.

결론: 그의 주장을 인정하여야 한다(인정하지 말아야 한다).

개별적사람의 신뢰성에 대한 평가에는 편견이 작용할수도 있다. 그러므로 대화과정에 말하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면 듣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따져보아야 한다.

① 신뢰성에 대한 질문: 그가 믿을수 있는(믿을수 없는) 사람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사람에 대한 평가는 그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들에 기초하여 내려야 한다. 그러므로 그가 믿을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보고 믿을수 있다고 하는가. 믿을수 없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보고 그렇게 말할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따져야 한다.

② 관련성에 대한 질문: 그의 품성이 논의되는 주장의 타당성과 관련이 있는가?

우의 실례에서는 그의 품성이 돈을 제때에 어김없이 반환할것인가 안할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 그러나 논의되는 주장이 그의 품성과 거리가 먼 문제라면 관련이 없을수도 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논리적인 대화에서 리용하는 여러가지 논법들은 일정한 논리적타당성이 있지만 어떤 주장을 확증하는것이 아니라 그럴듯한 주장으로 보이게 한다. 그러므로 대화자들은 이러한 논법들을 적용하면서 논리적으로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